

국회 제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니

# 광주, 자치구 없애고 광역시 체제 유지

## 무안반도·광양만권 통합 논의 재점화될 듯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다 이를 구체화한 방안 등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에서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설불리 이 문제를 다룰 경우 지역 및 자치단체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권 행정체제 개편 논의=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데 이어 24일 민주당 박기춘, 25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국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허태열, 권경석, 우윤근 의원의 안은 대동소이하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인접 시·군·구를 합쳐 60~70개의 통합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러나 권경석, 우윤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허태열 의원은 시·군·구 통합이 3분의 2 이뤄진 이후 '도'의 기능과 지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은 어떻게 돼나=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의 무안반도와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90년대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네 번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전남 동부권은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한데 이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둔 지난 2007년부터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광역권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허태열 의원의 특별법안에 따라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산하 자치구 단위가 없어지고 현재와 같은 광역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은 경남의 하동·남해 등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또 화순·보성·고흥, 목포·무안·신안, 함평·나주, 영광·고창·부안, 장성·담양·정읍, 영암·장흥·강진, 여수 등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쟁점=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꾸준히 논의돼왔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데 공감했으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가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도를 폐지하고 5~7개의 광역시로 60~70개 통합 자치단체로 재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 “4대강 살리기 면적당 사업비 영산강 최다”

### 현장점검 전남 방문한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 사업비가 낙동강 쪽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역 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점검차 25일 전남을 방문한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영산강 사업이 두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동강 사업은 9조 7천억, 한강은 2조, 금강은 2조 4천억, 영산강은 2조 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낙동강은 다른 세 강에 비해 길이가 가장 길고 홍수·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질이 전국 최악입니다. 반면 영산강은 하천 연장이 가장 짧고 유역면적도 가장 적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한강 금강보다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유역 면적당 투입예산을 보면 영산강이 ㎢당 7억6천만원으로 낙동강 4억2천만원, 금강 2억5천만원, 한강 8천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최 차관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타 지역 사업보다 내실있게 짜여졌으며 “이명박 정

부 집권 이전부터 전남도가 영산강 뱃길 살리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온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는 오히려 규모 있는 선박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상 준설을 더 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라고 인식하는 세력들에게 전남도의 정책을 살펴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라고 강조



최장현 국토부 제2차관(맨 왼쪽)이 25일 오후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 중 선도사업이 진행중인 나주시 죽림동 생태하천 조성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했다.

최 차관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4대강 사업중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와 관광, 환경과 생태측면에서 놀랄 만큼 좋아진 강, 누구나 가까이서 즐기고 싶어지는 영산강을 광주·전남 시민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내년 10월 개막할 포뮬러원(F1) 대회를 앞두고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에서 경주장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F1 8개팀 영암대회 불참 → 참가 번복 왜

# FIA 예산상한제 일단 취소

(국제자동차연맹)

## 반쪽 대회·홍행 악영향 우려 함의

내년 F1 대회 불참과 다른 시리즈 독자 운영 선언으로 세계모터 스포츠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F1 주요 경기팀 단체인 '포타'(FOTA·Formula One Team's Association)가 FIA(국제 자동차연맹)와 극적인 협상을 통해 불참을 번복하면서 내년 F1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내년 F1대회의 경우 첫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들 F1 주요 경기팀 참가 확인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요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FIA와 FOTA의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상한제'였다. 페라리와 맥라렌 등 F1대회 8개 주요 팀이 가입한 포타는 그동안 수익배분과 경기진행 방식, 예산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FIA와 갈등을 빚어왔다.

'예산상한제'는 F1 경주팀이 대회에 투입하는 경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FIA는 애초 신생팀이나 소규모 팀이 더 많이 참여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

대회부터 F1팀 '예산 상한제'(연간 4천만 파운드·한화 830억원)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FOTA는 이에 대해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스피드를 낸다”는 F1의 정신에 어긋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차량 성능이 떨어지고 마케팅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F1의 인기마저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며 최근 내년 F1대회 불참과 함께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FIA를 압박했다.

FOTA는 F1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10개 팀 중 페라리와 맥라렌·르노·도요타·레드불·토로로소·브라운·BMW 자우버 등 8개팀이 참여한 단체인데, 이에 따라 F1대회 운영기구인 FOM은 대회 최종 엔트리 확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FIA와 FOTA간 중재에 나섰고, 결국 세계모터스포츠총회(WMSC)에서 FIA와 FOTA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FIA와 FOTA는 이번 협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상한제'를

보류하고, 2년 내에 각 팀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챔피언십에서 사용했던 수준으로 비용을 줄인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2년 내 예산 절감이 이뤄지지 미지수여서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FIA가 예산상한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FOTA 소속 팀들이 F1대회에 불참할 경우 대회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년 코리아 그랑프리도 '반쪽대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FOTA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현 FIA 회장 맥스 모즐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FOTA의 '대회 불참' 강수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모터스포츠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FIA는 자율적 예산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상한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FOTA 소속 8개 명문팀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관철함으로써 양자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은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교통요지 대로변 최고의 “**황금상권**”

운암동 “**롯데오 빌딩**”

확! 달라진 분양·임대조건!!

고객중심의 평형대분양·임대 가능!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운암동 최고의 실크리트!!

\* 동원스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 3층에 전용주차장 100여대 \* 100% 분양률 \* 넓은주차공간! \* 옥상·지하 150여대 확보

2인세대가 넘는 탄탄한 고층 고객확보!

대단위 AP기를 독립하는 최적입지

롯데오빌딩(주) & 해양건설(주)

이임건축사사무소 & IBK

분양·임대문의 ☎(062)571-5600, 511-7878